

직업무용단체 정기공연의 주제경향 분석

Analyze Theme Trend for Subscription Performance of Professional Dance Groups

심다솜, 김선정
단국대학교 무용과

Da-Som Sim(dasomi8126@hanmail.net), Sun-Jung Kim(dance4002@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무용단 중 한국무용을 대표할 수 있는 국립무용단, 서울시무용단, 경기도립무용단의 정기공연작품의 주제경향 분석을 통해 무용이 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지녔는지 작품의 주제경향으로 시대별 사회의 흐름을 유추하여 무용과 사회의 구조관계를 조사하고, 무용작품의 주제에 대한 의미를 각인시켜 후속연구에 기반을 제공함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및 관련서적을 참고한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국립무용단, 서울시무용단, 경기도립무용단 세 무용단으로 선정하여 각 무용단의 창단부터 현재까지의 정기공연을 팸플렛, 신문기사, 무용단의 공연자료 및 관련된 선행논문을 통해 정기공연의 주제를 조사하였다.

자료분석은 주제경향 선행논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김병석의 분류방법에 따라 무용단의 창단부터 현재까지 공연된 정기공연 내용과 주제를 중심으로 1) 전통의식적 주제, 2) 문학적인 주제, 3) 역사적인 주제, 4) 추상적인 주제, 5) 현실적인 주제, 6) 사회적인 주제로 분류하였다.

■ 중심어 : | 직업무용단 | 정기공연 | 주제경향분석 |

Abstract

I would like to trace back periodic social trend by searching if regular performance might have reflected on social trend on its theme by analyzing theme trend of The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Dance Company of Seoul city, Dance Company of KyungKi-Do and to provide the meaningful results for further study by checking if the theme of dancing performance is in relation with social structure.

To perform this research, I had studied on previous thesis and reference books. For example, I selected three groups, of The National Dance Company of Korea, Dance Company of Seoul city, Dance Company of KyungKi-Do, to research their theme of regular performance through checking previous thesis related to, performance material, news articles, pamphlets from beginning to present.

How to analyze is being proceeded from foundation of dancing company to present according to Kim Byungseok's classification method, which was consistently used for searching theme trend from previous study as below;

1) Theme based on traditional conscious, 2) Theme based on Literature, 3) Theme based on Historic issues, 4) Theme based on abstract, 5) Theme based on reality, 6) Theme based on social issues.

■ keyword : | Professional Dance Groups | Subscription Performance | Analyze Theme Trend |

I. 서론

1. 무용예술과 직업무용단체의 정의

예술은 문화적 대상물이자 종교와 더불어 인간의 정신구조와 사회구조를 매개하는 핵심적인 상징체계들로 기능한다[13]. 특히 무용예술은 인류의 발생과 더불어 원시종합예술체에서부터 사람이 신에게 기원을 들이는 제의적인 성격을 지녔고, 이러한 성격은 근현대에 이르면서 올림픽과 같은 각종 세계적인 행사나 집회에서 결속의 상징이 되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예술로서의 무용의 가치를 입증하는 실례들인 동시에, 개인의 정신적·문화적 육구 충족 및 건강한 심신을 이룰 수 있는 자아실현의 수단으로서 기능을 함유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8].

이러한 무용예술이 가진 상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스파르샷(Francis Sparshott)의 지적처럼 무용예술은 선사시대를 제외하고는 역사적으로 시대와 사회적 이데올로기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자들로부터 소외당해왔던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논의의 부재는 무용예술은 의미체를 결여하고 있다는 낙인과 함께 무용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는 결과를 야기했고 결국 무용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주된 이유가 되었다[12].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 현대 무용학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용예술이 가진 독립적인 학문체계의 확립과 더불어 학계 및 전문무용인들의 의식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풀기 위한 첫걸음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존하고 있는 직업무용단체들의 공연주제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이 연구주제를 설정한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이해를 선행한다.

첫째, 왜 직업무용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인가. 직업무용단체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무용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공동단체로써, 목적에 따라 대상인들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창달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집단을 말한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무용예술은 제의나 축제에서 행해지던 집단제례의식의 형태에서 출발, 발전된 것으로 그

진신(前身)을 찾을 수 있다. 이때 샤먼(Shaman, 무당)이 의식을 주관하면서 신과 인간 사이 소통의 중개자로서 신께 인간의 소망을 전달하고, 인간에게 신의 뜻을 해석해주는 모습처럼, 직업무용가는 동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내재된 욕망을 대신 표출해주는 형태를 가지므로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

둘째, 왜 정기공연 주제경향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직업무용단체는 정기적인 무용예술 활동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개인적,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각종 요건들에 대해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들의 정기공연의 주제경향을 분석함으로써, 당시 무용예술을 통해 표출하고 충족하고자 했던 사회적 주제로써 시대적 상황을 역(易)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

현재 국내 활동 중인 직업무용단체는 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 국립국악원과 각 지방별 시립무용단, 도립무용단과 기업별 사단법인 무용단 등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주제경향분석의 시발점으로 국립무용단, 서울시무용단, 경기도립무용단의 정기공연(2000-2010년)으로 대상을 한정하고자 한다. 이 세 무용단체의 상설공연이나 기획공연, 기념공연 등을 제외한 정기공연의 주제경향 분석을 통해 무용예술이 가진 시대적·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무용예술학의 학문적 위상의 논리성을 세우고자 한다. 분석작업을 위해 각 무용단의 창단부터 현재까지 정기공연 팸플릿 및 홈페이지, 공연자료, 신문기사 그리고 선행된 연구자료를 분석할 것이다.

자료분석은 ㉠전통의식적 주제, ㉡문학적인 주제, ㉢역사적인 주제, ㉣추상적인 주제, ㉤현실적인 주제, ㉥사회적인 주제 등 김병석의 주제분류법을 차용하여 정리했다[3].

이런 과정은 무용예술학의 후속연구에 기반을 제공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무용예술이 사회적 예술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타진하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한국창작무용의 시대별 흐름

무용공연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행위적 퍼포먼스 Performance를 규칙적으로 무대에 올리는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무용 공연은 일정한 장소와 한시적인 예술형태를 발생시키고 동시에 소멸되는 특성을 지닌 예술형태를 포괄하기도 한다[1]. 이때의 예술은 시대, 지역, 생활에 따라 변용되며, 당대의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문화예술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정신과 가치 등을 반영하는 척도가 된다. 급속한 사회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생활은 정신적·물질적 양면에서 큰 변화를 보였으며 현대사회는 공연 예술에서도 다양한 예술 요소들이 결합한 표현양식을 가져왔다[4]. 특히 현대사회에서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개인의 사회참여도가 높아지면서, 무용예술을 포함한 모든 문화예술은 기존의 소극적으로 감상만 했던 예술 향유자가 직접 공연에 참가하거나 혹은 개별적인 작품을 만드는 등, 적극적인 예술감상활동 등을 통해 사회문화적 환경의 일부로 존재하게 되었다. 즉, 창작무용은 전통무용에 현대성을 수용하여 새롭게 재창출하거나, 그 춤사위를 이용하여 새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만들어진 무용작품을 총칭한다. 이러한 큰 형식을 테두리로 하여 담고자하는 내용은 시대별로 사회와 개인이 결부되어 그 경향이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변화는 그 예술이 속한 시대와 사회의 객관적 현실에 개인의 주관적인 상황을 반영하면서 여러 해석의 여지를 만들어내는 영향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주제경향 분석을 시대별로 나누어 접근하는 건 매우 중대한 일이 될 것이다.

1960년대 한국창작무용은 자기완성의 비판력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의식구조가 예술가의 자기철학관 속에서 기능적이고 체계적인 기술향상이 이루어진 시기로 볼 수 있다. 1970년대는 근대무용에서 나타났던 신무용적 표현이 계속되었고 국립극장 건립 이후, 대형무대를 서사적 형식으로 무용극화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무용계의 현대 한국 창작춤 활동은 나름대로의 고유한 춤 문화적 특성과 연관되면서 전통에

기반을 둔 현대화, 즉 전통적 소재와 주제, 춤사위를 창작 작업에 수용하여 다양한 표현 양식을 갖추며 활발하게 전개했다. 1980년대의 한국창작무용은 개인의 심리적이고 내면적인 자아 세계를 표출하려는 움직임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반문제를 다루는 안무성향이 흘렀고, 다매체적인 실험의식이 나타나는 경향이 나타난 시기였다[5]. 이런 움직임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대적 극장 춤의 양식에 맞게 변화시키며 한국 춤 문화의 전통을 보다 긴밀하게 관찰, 재창조 하였다. 한국적인 소재로 오늘의 춤을 표현하거나 전통과 현대를 모두 수용하면서 무용가들이 개성 있는 작품세계를 표출했는데, 대표적인 작품경향은 한국 전통사상을 바탕으로 한 뚜렷한 주제의식의 표출, 가식적 표현에서 탈피하여 개성 있는 무용언어를 개발하려 한 점을 들 수 있다[11]. 또한 공연의 양적 증가, 무용단체와 무용인구의 증가, 관련 예술의 발전 등 외형상의 발전과 무용기교의 세련화, 공연내용의 다양화 등 질적인 면의 발전도 이루어졌고 ‘무용의 르네상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며 86아시아게임과 88올림픽을 계기로 대외적으로 위상을 격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의 동질성을 확인시키고 춤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다[14]. 이때는 또한 전통에서 단절된 한국무용의 본래의 모습을 찾는 일, 한국무용이 공연이라는 형식미를 추구하는 다양한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였다[7]. 2000년대 이후 현대과학문명에 따라 비인간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시대사조로부터 생겨난 현대화의 ‘연속’과 ‘탈’ 개념의 후기 현대화를 수용하려던 한국창작무용은 모든 장르별 구분과 경계를 없애는 탈장르적인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진보된 안무가들에 의해 독자적이고 과학적인 예술로 표현되었다[5]. 그리고 2002년에는 한·일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 게임 등의 문화행사 지원으로 인해 많은 지원금이 무용계에 투입되었으며 그 결과 엄청난 제작비가 투입된 풍성한 무용무대를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국내 무용계가 무용가나 기획사, 극장 할 것 없이 모두 국제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외국으로 눈을 돌리는 시점에 이르렀다[2].

2. 직업무용단체의 설립배경과 성격

직업무용단체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무용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공동단체로써, 목적에 따라 대상인들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창달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기적인 활동을 주관하는 공식적인 집단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26개의 직업무용단이 활동하고 있다. 그중 기업단체를 제외하고, 국립은 국립국악원무용단과 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 국립남도국악원무용단, 국립현대무용단 등 5개 단체가 있으며, 도립은 경기도립무용단과 제주도립무용단, 강원도립무용단 등 3개 단체가, 특별시 및 광역시 단위의 시립은 서울시립무용단과 부산시립무용단, 광주시립무용단, 대구시립무용단, 인천시립무용단, 대전시립무용단, 울산시립무용단 등 7개 단체가 있다. 일반 자치단체의 시립은 창원시립무용단과 목포시립무용단, 구미시립무용단, 청주시립무용단, 익산시립무용단, 의정부시립무용단, 천안시립무용단, 포천시립무용단 등 8개 단체가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6].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들 직업무용단체는 매년 정기공연, 기획공연, 지원공연, 특별공연, 교류공연, 해외공연 등 평균 100회 이상의 공연 일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직업무용단체는 각 소속 및 창단이념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무용단체별 설립배경 및 성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국립무용단 : 서울 장충동에 소재한 중앙국립극장 산하에 설치된 최초 국립전문무용단체로써, 1962년 국립극장 부속단체로 창단되었다. 정통민속무용의 재창조와 창작무용의 무대화를 목표로 한 국립무용단은 송범, 김백봉, 김진걸 외 한국대표무용가들의 안무를 통해 전통무용의 형식을 정립하고 현대화의 모색을 통해 한국의 대표적 무용단체로써 예술적 완성도를 높혀왔다.

1973년부터 1992년까지는 정착·발전기로 국립극장이 장충동으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는데, 국립무용단은 송범이 새롭게 단장을 맡으면서 한국적 소재에 당시에는 매우 낯설었던 창작적인 국악을 사용하여 발레극과 같은 스펙터클한 춤을 지향했다. 이후, 조흥동, 최현, 국수호, 배정혜, 김현자와 같은 안무가들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기간이었으며, 이 시기에는 예술 감독제 도입으로 여러 가지 변화의 가능성을 시험하게 된다.

국립무용단은 이러한 ‘한국의 춤’을 가지고 이후 여러 국가적 행사에 동원되거나 외교사절로서의 한국문화를 알리는 행사에서 신무용전통의 한국 창작무용을 주로 선보여 왔다. 이러한 기능은 오늘날까지도 국립무용단이 담당하고 있는 일부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2].

국립무용단 정기공연별 주제와 안무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국립무용단 정기공연 연혁

회차	기간	주제	안무자
1	1962.03.31. - 04.04	백의 환상, 영은 살아있다, 쌍곡선	임성남, 송범
2	1963.03.13 - 03.17	검은 태양, 사신의 독백	송범, 임성남
3	1963.10.23 - 10.27	영지, 산제	송범, 김문숙, 강선영
4	1964.06.20 - 06.24	푸른도포, 허도령	주리, 임성남
5	1965.03.10 - 03.14	배신, 열두무녀도	송범, 김진인, 강선영
6	1965.10.13 - 10.17	멍든 산화, 무희 타이쓰, 제3의 영상	송범, 주리, 임성남
7	1966.03.01 - 03.05	3.1절 기념 대공연	김문숙, 송범 외
8	1966.10.12 - 10.16	스위트스판요라, 왕비휘도르, 심산유곡	주리, 송범
9	1967.09.13 - 09.17	까치의 죽음, 증승	임성남, 송범
10	1968.09.06 - 09.08	향연, 초혼	김진인, 강선영
11	1969.10.24 - 10.26	봉선화, 모란의 정	김진걸, 강선영
12	1973.11.21 - 11.25	별의전설	송범
13	1974.06.12 - 06.16	한국무용제전	송범
14	1974.11.27	왕자호동	송범, 이진순
15	1975.07.16 - 07.20	심청	김백봉, 안제승
16	1975.10.16 - 10.17	한국무용제전	송범
17	1976.06.24 - 06.27	원호대사	강선영, 백성규
18	1976.10.04 - 10.06	종합무용제	송범
19	1977.02.03 - 02.05	춘향전, 전통무용과 음악	송범, 이진순
20	1977.05.24 - 05.26	원호대사	강선영, 백성규
21	1978.03.10 - 03.14	마음속에 이는 바람	송범

22	1978.10.06 - 10.08	종합무용제	송범
23	1979.05.23 - 05.27	꿈꿈꿈	송범
24	1979.12.13	시집가는 날	최현
25	1980.06.20 - 06.24	푸른천지 (일명 허생전)	송범
26	1980.09.25 - 09.29	별의 전설, 심청, 시집가는 날	송범, 김백봉, 최 현
27	1981.05.28 - 12.02	황진이	강선영
28	1981.11.16 - 11.20	마의 태자	최현
29	1982.03.21 - 03.24	송범 무용전	송범
30	1982.04.21 - 04.26	쌔물	송범
31	1982.10.20 - 10.21	중남미 순회 귀국공연	송범 외
32	1983.04.12 - 04.05	한국무용전	송범, 국수호
33	1983.06.13 - 08.10	맥	조흥동
34	1984.03.19 - 03.23	무녀도, 뜯구름	국수호
35	1984.05.24 - 05.27	도미부인	송범
36	1984.10.08 - 10.10	도미부인	송범
37	1985.03.27 - 03.29	다구지, 작업, 심열, 법앞에서	이화수, 이지영 외
38	1985.05.22	화관무 외	송범
39	1985.08.27 - 08.30	젊은 날의 초상	조흥동
40	1985.12.18 - 12.19	북의 대항주, 도미부인	국수호, 송범
41	1986.04.10	은하수	송범
42	1986.05.18	젊은 날의 초상	조흥동
43	1986.07.11 - 07.12	민속예술단 유립순회 귀국공 연	송범
44	1986.08.15 - 08.17	도미부인	송범
45	1986.10.05 - 10.06	은하수	송범
46	1986.10.09 - 10.11	은하수	송범
47	1986.12.20 - 12.21	도미부인	송범
48	1987.01.04	은하수	송범
49	1987.04.04 - 04.07	대지의 춤	국수호
50	1987.09.02	'87 무용예술큰잔치	송범
51	1987.12.14 - 12.16	은하수 외	송범
52	1988.03.04 - 03.07	도미부인	송범
53	1988.09.28 - 09.29	하안초상	조흥동
54	1988.12.08 - 12.10	하안초상- 송년대공연	윤성주, 강이섭 외
55	1989.06.23 - 06.28	신	조흥동

56	1989.07.13 - 07.14	중견단원 창작무용	송범
57	1990.03.22 - 03.24	흙의 울음(신)	조흥동
58	1990.06.20 - 06.24	그 하늘 그 북소리	송범
59	1991.06.01 - 06.04	그 하늘 그 북소리	송범
60	1992.03.05 - 03.08	강강술래	조흥동
61	1992.11.26 - 11.29	도미부인	송범
62	1999.04.17 - 04.22	우리 춤, 우리의 맥	조흥동 외
63	1993.10.12 - 10.17	환 (무영탑)	조흥동
64	1994.03.24 - 03.27	강강술래	조흥동
65	1994.05.17 - 05.22	환 (무영탑)	조흥동
66	1994.11.23 - 11.30	무천의 아침	조흥동
67	1995.12.14 - 12.19	황혼의 노래	국수호
68	1996.03.30 - 04.02	전설과 현실 (석학, 아롱의 여인들)	김향금
69	1996.09.17 - 09.22	무녀도	국수호
70	1996.11.26 - 12.01	오셀로 (출극 무어랑)	국수호
71	1997.05.01 - 05.06	이차돈의 하늘	국수호
72	1997.05.27 - 05.28	젊은 안무가의 작품세계 '인 간'	김호동, 정혁준 외
73	1997.09.18 - 09.21	오셀로	국수호
74	1997.11.29 - 12.02	황사의 길을 따라 (동양 3국의 북춤)	국수호
75	1998.03.19 - 03.22	한국, 천년의 춤	국수호
76	1998.11.26 - 11.29	자연인, 티벳의 하늘	국수호, 이정희
77	1999.01.16 - 01.17	우리춤과 발레의 만남	국수호, 최태지
78	1999.05.22 - 05.25	한국, 천년의춤Ⅲ 백제춤:그 새벽의 땅	국수호
79	2000.04.19 - 04.22	4인4색- 나홀간의 춤 이야기	배정혜, 송범/ 조흥동, 국수호/ 최현, 이윤석/ 김덕명
80	2000.09.22 - 09.27	한국, 천년의 춤 신라의 빛	배정혜
81	2001.04.20 - 04.25	춘향전 (춘당춘색고금동)	배정혜
82	2002.06.02 - 06.05	춤, 춘향	배정혜
83	2002.11.16 - 11.19	마지막 바다	윤상진
84	2003.04.24 - 04.27	바다	김현자
85	2003.10.16 - 10.19	비어있는 들	김현자

86	2004.03.13 - 03.14	주목- 흐름을 눈여겨보다	김장우, 정혜진 외
87	2004.11.11 - 11.13	코리아 환타지	
88	2005.03.24 - 03.26	주목- 흐름을 눈여겨보다	안성수, 김연희 외
90	2006.10.27 - 10.31	soul. 해바라기	배정혜
91	2008.05.17 - 05.21	코리아 환타지3 (Millennium Road)	배정혜
92	2009.09.19 - 09.23	가야	배정혜

㉠ 서울시무용단 :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의 부설 무용부를 독립시켜 1974년 발족하여 전통준중과 창작 지향, 즉 무용의 전통성과 현대성을 추구하면서 민족전통문화 예술을 복원시키고 발전시키는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국가적 이미지를 알리는 문화적 선교사 역할을 병행한 단체라고 정리하고 있다[9].

창단 이래 서울 시립무용단이 꾸준히 해온 작업들은 전통적인 것을 모두 수렴하고 발굴, 보존, 재현하여 무대 위에 올려놓음과 동시에 이해하기 쉬운 민속무용들을 정리하여 수많은 시민위안공연에 정성을 쏟았다. 또한 외래적인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토착적인 것과 종합하고 화합시켜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실험 작업을 함으로써 한국 무용계에 있어 색다른 창작 무대의 시작을 낳기도 했다[10].

이처럼 서울시 무용단은 한국 무용계의 중추적 역할을 자처하며,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창작 춤의 꾸준한 작업을 통해 한국 창작 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세종문화회관 출범 이후 순수 예술의 고급화 및 대중화 확산을 지향점으로 하여 보다 진정한 생활 속의 춤, 그리고 춤의 대중화를 위한 끊임없는 모색과 그 시도는 이 시대의 중요한 한 획을 그은 중이라 하겠다[14].

서울시무용단 정기공연별 주제와 안무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서울시무용단 정기공연 연혁

회차	기간	주제	안무자
93하반	1993.10.15 - 10.17	두레	배정혜
94상반	1994.04.19 - 04.20	녹두꽃이 떨어지면	배정혜

97상반	1997.09.11 - 09.12	하안강(DMZ)	배정혜
01정기	2001.07.04 - 07.05	밤산	임학선
03정기	2003.05.07 - 05.09	공화	이흥이
03정기	2003.10.20 - 10.22	다섯가지 리듬의 색깔과 몸짓	최주희, 강선미 외
03정기	2003.12.01 - 12.03	서울시 무용단과 함께 보는 명무전	
04정기	2004.12.05	대지의 샘	최효선, 박종필
05정기	2005.06.21 - 06.22	무애지무,	김백봉
05정기	2005.11.04 - 11.05	한양실화 I 청계	김백봉
05정기	2005.12.03 - 12.04	단원 춤 작가전	김백봉
06정기	2006.05.08 - 05.09	심청	김백봉
06정기	2006.11.03 - 11.04	한아름 보듬어 맺고 풀고	김백봉
07정기	2007.05.23 - 05.24	연리근	김백봉
07정기	2007.11.07 - 11.08	서벌	임이조
07정기	2007.11.26 - 11.27	전통춤대제전	임이조
08정기	2008.04.24 - 04.25	경성, 1930	임이조
08정기	2008.12.16 - 12.18	하안사 고이집어	임이조
09정기	2009.05.22 - 05.23	바리	임이조
09정기	2009.11.06 - 11.07	만월	임이조
09정기	2009.12.10 - 12.11	중견작가전 Now, Movement	임이조
10정기	2010.05.28 - 05.29	백조의 호수	임이조
10정기	2010.11.05 - 11.06	사미인곡	임이조

㉡ 경기도립무용단 :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소속예술단으로, 국내최초의 도립무용단으로 1993년 창단되어 현재까지 경기도 문화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한국고유의 전통무용 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개발하고 경기도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과 더불어 민족 문화 예술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993년 정재만 안무자로 시작하여, 1995년 김근희 예술감독, 2000년부터는 조흥동 예술감독이 이끌어 오고 있다. 23회의 정기공연과 다수의 경축행사, 지역 및 해외공연, 비정기적인 청소년과 도민을 위한 공연 등 수백 회에 달하는 공연을 경기도민은 물론 해외교포의 가

습속에 진한 감동과 자긍심을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단체이며 1997년부터는 공연활동의 전문화를 위해 예술 감독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특히 조흥동 예술감독은 도민들에게 춤 문화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작품, 우리 춤의 전통적 가락과 춤사위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창작기법을 선보이는 작품, 청소년에게 예술 문화의 소양과 건전한 정신문화를 형성시킬 수 있는 작품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15].

경기도립무용단 정기공연별 주제와 안무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 경기도립무용단 정기공연 연혁

회차	기간	주제	안무자
1	1993.12.13 - 12.15	창단공연 한국춤전	정재만
2	1994.04.16 - 04.17	애 수원성	정재만
3	1994.10.05 - 10.07	은하수	정재만
4	1995.06.01 - 06.03	제암리의 아침	김근희
5	1995.11.10 - 11.12	바람맞는날의 풍경소리	김근희
6	1996.05.22 - 05.25	수트라	김근희
7	1996.12.12 - 12.15	성애꽃	김근희
8	1997.05.29 - 05.31	효녀심청	김근희
9	1997.11.25 - 11.29	어제, 오늘, 내일	김근희
10	1998.05.29 - 05.30	콩쥐 팥쥐	김근희
11	1998.12.10	일어서는 빛	김근희
12	1999.06.25 - 06.26	흥부놀부	김근희
13	1999.11.26 - 11.27	아방리의 하늘을 여는 소리	김근희
14	2000.06.16 - 06.17	우리춤 그 맥 2000	조흥동
15	2000.11.17 - 11.18	연인	조흥동
16	2001.06.15 - 06.16	황진이	조흥동
17	2001.11.23 - 11.24	잃어버린 신화를 찾아서	조흥동
18	2002.06.08 - 06.09	화합의 빛	조흥동
19	2002.11.22 - 11.23	마의태자	조흥동
20	2003.06.20 - 06.21	우리 춤의 맥	조흥동
21	2003.11.21 - 11.22	삼별초의 혼길	조흥동

22	2004.05.21 - 05.22	고성의 무백	조흥동
23	2004.11.17 - 11.20	꿈꿨었으니	조흥동
24	2005.05.20 - 05.21	조흥동의 춤의 세계	조흥동
25	2006.05.26 - 05.27	달은 지고 꽃은 말이 없는데	조흥동
26	2006.11.17 - 11.18	봉수당진천례와 우리춤의 맥	조흥동
27	2007.09.18 - 09.21	황진이	조흥동
28	2007.11.07 - 11.10	춤하기 그 색깔	조흥동
29	2008.06.18 - 06.21	무화	조흥동
30	2009.06.12 - 06.13	천년의 유산	조흥동
31	2009.10.16 - 10.18	태권무무 달하	조흥동
32	2010.06.11 - 06.12	한국의 얼- 천년의 유산	조흥동
33	2010.11.26 - 11.27	도미부인	조흥동

3. 주제경향 분류 기준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직업무용단체 정기공연 주제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여타의 연구자들이 차용했던 김병석의 주제분류법을 차용하도록 한다.

총 6개 부분으로 나누어진 김병석의 주제분류법은, ㉠전통의식적 주제, ㉡문화적인 주제, ㉢역사적인 주제, ㉣추상적인 주제, ㉤현실적인 주제, ㉥사회적인 주제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각 주제별 범위해석은 다음과 같이 정리·요약할 수 있다.

㉠전통의식적인 주제 : 한국전통사상과 문화, 그리고 한국인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한국 토속신앙과 유교, 불교, 종교의식, 민속무 등을 함유하고 있는 전통의식적 주제를 말한다. 한국토속신앙에서의 삶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는 인간의 현재적 삶을 초월하여 나타내는 주제이기도 하다. 특히 종교적 세계를 함유하고 있어서, 인간 존재의 고뇌와 좌절, 그리고 신화나 제의적 세계관에 호소하는 근본적인 사상들을 근거로 접근하여, 현대 사회에서 오히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문화적인 주제 : 일정한 시대나 일정한 지역에서 내려온 전설, 설화, 신화, 민담의 내용을 다루어,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지만, 과거의 있었을 법한 일 등을 주제

로 한다. 그 외에 현대소설이나 시 등 문학작품의 형태로 내려온 주제까지 포함한다. 무용예술에 있어서 문학작품을 활용한다는 것은 그 작품에 한정되기보다 시대와 안무자에 따라 재해석과 재의미 부여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시각에서 구성하여 해석하고 시대상을 조명할 수 있는 주제이다.

㉑역사적인 주제 : 역사적인 사실 즉, 영웅들의 이야기, 전쟁, 흥망성쇠 등을 포괄한 주제이며, 그 외 우리민족의 기상, 조선시대의 엄격한 봉건적 질서체계, 양반제도 등의 내용을 포괄한다. 특히 한국고유의 정치, 역사 그리고 사회의 구조로부터의 극적갈등과 현시적 문제점까지 무용으로 상징화시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여타 주제들에 비해 이해와 공감을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무용극 형식에서 많이 이용되었음).

㉒추상적인 주제 : '추상적'이란 '구체적'인 내용의 부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해나 전달의 메시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한다. 즉, 무용에서 추상적인 주제란 하나의 사물이나 많은 사물에 관한 이미지를 유사한 이미지로 본질에 집중시켜 묘사하고 표현해내는 것으로, 자칫 관련성이 없는 움직임과 계획성이 없는 흐름으로 전개를 방해할 수 있겠지만, 보다 치밀한 논리적 전개를 준비한다면 보다 실험적이고 활용이 많은 작품주제가 될 것이다.

㉓현실적인 주제 : 현실의 삶을 반영하는 것으로 오래된 일의 회고적인 주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살아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용으로 한다. 현대인의 내면적 심리, 갈등, 방황, 현실세계의 위기에서부터 현실의 닦쳐있는 사소한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주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주제와 함께 현 사회와 가장 밀접한 주제일 수 있다. 예술에 있어서 현실을 언급하는 것은 예술이 환상일 수만은 없다는 의미로 현실성의 반영이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㉔사회적인 주제 : 사회의 모든 여건, 즉 정치, 경제, 종교, 과학, 환경, 도덕의 영향 아래서 사회의 변동이 인간과 예술에 반영되고 변화시키므로, 한 시대의 사회현상과 밀착시킨 공통된 현실 공감은 당대를 함께 살아가는 예술인들에게 필연적인 주제일 것이다. 예술작품에

있어서 사회성은 개성적인 테두리를 벗어나 인간의 삶의 터전인 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비로소 인간의 심적 상호교류로써 고유한 가치나 공통의 가치가 발견된다. 그리고 예술은 사회의 소재를 당대 사회로부터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옮겨 놓아야 한다. 그래서 예술의 언어는 인류의 언어가 아닌 시대의 언어이어야 한다. 그 시대상황과 사회성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예술은 인간의 삶의 배경이 되는 사회를 통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이론적 배경으로, 3장에서는 직업무용단체를 시대적으로 나누어 6가지의 주제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III. 무용단체별 정기공연 주제경향 분석

1. 국립무용단 : 1960-2000년대

㉑ 1960년대-주제경향 중 문학적인 주제가 64.7%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이유는 전통무용의 재창조와 창작무용극의 무대화를 목표로 창단된 무용단체의 창단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에서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이때는 한국문화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예술문화작품의 사전심의를 시작되면서 민족적 자각과 주체의식 확립에 관심을 기울였기에[13], 한국적 사상이나 감정이 언어로 표현되어있는 문학을 통하여 표현하려 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4. 1960년대 국립무용단 정기공연 주제경향분석

주제	빈도	%
주제의식적	2	11.8
문학적	11	64.7
역사적	2	11.8
추상적	-	-
현실적	-	-
사회적	2	11.8

㉒ 1970년대-주제경향 중 문학적, 전통의식적, 역사적인 주제순으로 공연되었으며, 1960년대와 마찬가지로 추상적, 현실적 주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문학적인 주제가 50.0%로 여전히 높게 나타난 이유는 여전히 당시 모든 문화예술 활동을 국가가 통제 하에 있었기 때

문에 국립무용단의 작품도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이념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13], 이는 대부분의 작품이 충·효·의를 주제로 공연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표 5. 1970년대 국립무용단 정기공연 주제경향분석

주제	빈도	%
주제의식적	3	25.0
문학적	6	50.0
역사적	3	25.0
추상적	-	-
현실적	-	-
사회적	-	-

㉔1980년대-주제경향 중 문학적, 현실적, 전통의식적, 추상적, 역사적인 주제순으로 공연되었고, 사회적인 주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시기는 국제적인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면서 전통적인 춤사위와 현대창작무용을 재창조하는 공연이 많았으며 문학이나 설화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정서를 담아,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한 작품이 선보여졌다. 이시기의 국립무용단 정기공연 작품에서는 한국적인 소재를 통해 세계화를 시도한 정기공연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독특한 변화는 추상적, 현실적인 주제가 시도되면서 보다 활발한 무용창작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표 6. 1980년대 국립무용단 정기공연 주제경향분석

주제	빈도	%
주제의식적	9	23.7
문학적	14	36.8
역사적	2	5.3
추상적	3	7.9
현실적	10	26.3
사회적	-	-

㉕1990년대-주제경향 중 문학적, 전통의식적, 역사적, 사회적인 주제순으로 공연되었고, 추상적, 현실적인 주제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 시기는 1980년대의 축제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강강술래> 등 축제이자 놀이를 무대에 공연하여 대중성을 확보했으며, 외국작품을 한국무용극화하는 등 대상문학작품의 질적, 양적 확대

를 이루어 다양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시대적으로 문민정부의 출범과 예술문화의 저변확대를 기저로 하여 사회적인 주제또한 시도되는 고무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표 7. 1990년대 국립무용단 정기공연 주제경향분석

주제	빈도	%
주제의식적	9	33.3
문학적	12	44.4
역사적	3	11.1
추상적	-	-
현실적	-	-
사회적	3	11.1

㉖2000년대-전통의식적, 문학적, 역사적, 추상적, 현실적, 사회적인 주제로 공연되어, 모든 주제경향이 나타났다. 내용뿐만 아니라 무용예술시장에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 전국에 공연예술에 필요한 공연장이 700여개에 달하게 되고 국민들은 주 5일제가 실시되어 여가생활에 크게 관심이 많아졌으며 문화예술시장에 중장년층의 관객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당시 극장장이었던 김명곤은 '국립극장 2000년 및 향후 주요 사업계획'으로 작품의 예술성과 공연장 수준에서 최고가 되는 것을 경영목표 1순위로 둘 것이며 관객들이 가장 찾고 싶은 공연장으로 만들어 유료 관객객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국립극장 차원에서 마케팅 개념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 국립무용단에서는 전통의식적, 문학적, 역사적, 추상적, 현실적, 사회적인 주제로 다양하고 다채로운 주제로 정기공연이 실현되어졌고 일반인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춘향과 이순신을 중심으로 전통과 흥미가 가미된 대작을 만들었다. 2000년대부터 정기공연 작품들은 예술성, 대중성, 상업성이 추구된 것으로 보여진다.

표 8. 2000년대 국립무용단 정기공연 주제경향분석

주제	빈도	%
주제의식적	4	22.2
문학적	6	33.3
역사적	2	11.1
추상적	4	22.2
현실적	1	5.6
사회적	1	5.6

2. 서울시무용단 : 1990-2000년대

㉠1990년대-주제경향 중 문학적, 사회적인 주제로 공연되었으며, 전통의식적, 역사적, 추상적, 현실적인 주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존 국립무용단과는 다르게 대중화의 작업을 기저로, 세계적 무용단으로의 국제무대를 염두해 둔 일련의 작품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주제가 두드러지게 많이 발표되었다고 보여진다.

표 9. 1990년대 서울시무용단 정기공연 주제경향분석

주제	빈도	%
주제의식적	-	-
문학적	1	33.3
역사적	-	-
추상적	-	-
현실적	-	-
사회적	2	66.7

㉡2000년대-전통의식적, 문학적, 역사적, 추상적, 현실적, 사회적인 주제로 공연되어, 모든 주제경향이 나타났다. 이 시기에 세종문화회관의 재단법인화로 인해 서울시무용단에 책임 경영체가 도입되면서 서울시무용단으로 명칭이 바뀌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되었다. 서울시무용단은 발전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려 하였고, 전통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작품에서도 다양하게 6가지 주제경향이 모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0. 2000년대 서울시무용단 정기공연 주제경향분석

주제	빈도	%
주제의식적	6	21.4
문학적	9	32.1
역사적	1	3.6
추상적	3	10.7
현실적	5	17.9
사회적	4	14.3

3. 경기도립무용단 : 1990 - 2000년대

㉢1990년대-주제경향 중 전통의식적, 문학적, 역사적, 추상적, 사회적인 주제로 공연되었고, 현실적인 주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시기의 무용단은 한국적 정취, 한국적 상황, 한국적 의식을 가지고 대중화 작업이 중심이 되었고 국제무대를 염두해 일련의 작품이 발표되었

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것 같다. 이때에는 전통의 난해한 재해석보다 원작의 정신을 살려 우리 민족의 해학과 풍자정신을 섬세하면서도 활기찬 춤사위로 표현하는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 대중적 평가도 타무용단체에 비해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표 11. 1990년대 경기도립무용단 정기공연 주제경향분석

주제	빈도	%
주제의식적	2	12.5
문학적	5	31.3
역사적	3	18.8
추상적	4	25.0
현실적	-	-
사회적	2	12.5

㉣2000년대-주제경향 중 전통의식적, 문학적, 역사적, 사회적인 주제로 공연되었고, 추상적, 현실적인 주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이 무용단은 경기도 문화의전당 재단법인화로 인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였다. 또한 2000년 취임한 조홍동 예술감독은, 도민들에게 무용문화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작품, 무용의 전통적 가락과 춤사위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창작기법을 선보이는 작품, 청소년에게 예술문화의 소양과 건전한 정신문화를 형성시킬 수 있는 작품을 만들겠다고 했다[15]. 그렇기 때문에 전통에 바탕을 둔 창작극,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전통적인 공연위주의 무용극 등이 공연되어졌다.

표 12. 2000년대 경기도립무용단 정기공연 주제경향분석

주제	빈도	%
주제의식적	10	52.6
문학적	3	15.8
역사적	3	15.8
추상적	-	-
현실적	-	-
사회적	3	15.8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무용단 중 한국무용을 대표할 수 있는 국립무용단, 서울시무용단, 경기도립무용단체

정기공연의 주제경향을 시대별 분석을 통해 무용예술이 현대사회와의 구조관계를 조사하고, 무용작품의 주제에 대한 의의를 도출하여 후속연구에 기반을 제공함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각 무용단의 창단부터 현재까지 정기공연 팸플릿 및 홈페이지, 공연자료, 신문기사 그리고 선행된 연구자료를 조사했다. 자료분석은 ㉠ 전통의식적 주제, ㉡ 문학적인 주제, ㉢ 역사적인 주제, ㉣ 추상적인 주제, ㉤ 현실적인 주제, ㉥ 사회적인 주제 등 김병석의 주제 분류법을 차용하여 정리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무용단이 창단되었던 1962년부터 2010년까지의 정기공연의 주제경향 분석을 종합한 결과 1960년대(64.7%), 1970년대(50.0%), 1980년대(36.8%), 1990년대(44.4%), 2000년대(33.3%) 모두 문학적인 주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립무용단의 중점 목표인 창작무용극 대중화를 위하여 문학적인 주제를 선택하여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으며, 한국인의 감정과 사상을 문학적인 무용공연으로 표현하려 했다. 문학적 요소에서는 캐릭터가 다양하기 때문에 극적인 요소들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용의 대중화를 위해 문학적인 주제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1973년 이후 무용극의 정립이 국립무용단의 목표로서 전통 민속춤의 재창조에 비해 훨씬 두드러졌고, 심지어 전통 민속춤의 재창조는 해외 순회공연을 빼면 거의 없을 만큼 미약하였다. 국립무용단의 정기공연 작품들은 대중성, 예술성, 상업성이 추구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서울시립무용단은 1974년 창단되었지만 본고에서 정기공연으로 제한하여 대상작품은 1993년부터 2000년대까지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 시기의 정기공연 주제경향을 분석해보니 국립무용단의 그것과는 다르게 1990년대는 사회적인 주제가 66.7%로 높게 나타났으며, 2000년대는 문학적인 주제가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00년대 들어오면서 세종문화회관의 재단법인화로 인해 서울시립무용단에 책임 경영제가 도입되면서 서울시 무용단으로 명칭이 바뀌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됨으로써 공연의 양적 증가, 무

용단체와 무용인구의 증가, 관련 예술의 발전 등 외형상의 발전과 무용기교의 세련화, 공연내용의 다양화 등 질적인 면의 발전도 이루어졌다. 이 시기 서울시무용단은 한국무용의 대중화를 위하여 한국인의 정서를 담아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중적인 무용극을 공연하고자 했기 때문에 문학적인 주제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경기도립무용단이 창단된 1993년부터 2010년까지의 정기공연 주제경향 분석을 종합해보니 1990년대는 문학적인 주제가 31.3%로 높게 나타났고, 2000년대는 전통의식적인 주제가 52.6%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문화복지와 문화산업이 강조되고, 한국적 정취, 한국적 상황, 한국적 의식을 가지고 국제무대를 염두한 일련의 작품 위주로 공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조흥동 예술감독에 의해 도민들을 위한 무용문화의 향유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이러한 주제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직업무용단체 정기공연의 주제경향을 년도 별로 비교한다. 우선 1980년대 이전은 국립무용단의 작품만 있으므로 제외하고,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정리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 국립무용단, 서울시무용단, 경기도립무용단의 정기공연을 주제경향 분석한 결과 문학적인 주제가 39.1%로 높게 나타났고 전통의식적 주제 23.9%, 사회적인 주제 15.2%, 역사적인 주제 13.0%, 추상적인 주제 8.7% 순으로 나타났다.

국립무용단은 총 27회의 정기공연을 하였고 그 중 문학적 주제가 12회 26.1%로 높게 나타났고, 서울시무용단은 총 3회의 정기공연으로 사회적 주제가 2회 4.3%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도립무용단은 총 16회의 정기공연 중 5회 10.9%로 문학적인 주제가 높게 나타났다.

2000년대 국립무용단, 서울시무용단, 경기도립무용단의 정기공연을 주제경향 분석한 결과 전통의식적 주제가 30.8%로 높게 나타났고 문학적인 주제 27.7%, 사회적인 주제 12.3%, 추상적인 주제 10.8%, 역사적인 주제 9.2%, 현실적인 주제 9.2% 순으로 나타났다.

국립무용단은 총 18회의 정기공연을 하였고 그 중

문학적 주제가 6회 9.2%로 높게 나타났고, 서울시무용단은 총 28회의 정기공연으로 문학적 주제가 9회 13.8%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도립무용단은 총 19회의 정기공연 중 10회 15.4%로 전통의식적 주제가 높게 나타났다. 2000년대 전통의식적 주제가 30.8%로 높게 나타난 것은 그 중 16.67%로 경기도립무용단의 전통의식적 주제의 공연의 비중이 높게 차지하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문학적인 주제가 27.7%로, 전통의식적 주제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주제경향 결과를 비교 종합하여 볼 때 국립무용단, 서울시무용단, 경기도립무용단의 정기공연의 대부분은 문학적인 주제 공연되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무용단의 1990년대의 사회적인 주제, 경기도립무용단의 2000년대의 전통적인 주제를 제외한 국립무용단의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서울시무용단의 2000년대, 경기도립무용단의 1990년대는 모두 문학적인 주제가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시무용단의 1990년대 또한 사회적인 주제 2회, 문학적인 주제 1회로 차이가 미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주로 문학적인 주제가 공연 되어진 것은 대중에게 친숙한 문학적인 주제를 선택하여 다양한 캐릭터와 극적인 연출, 극의 구성에 의해 관객에게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창작무용극으로 무용단의 정기공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문학적인 주제는 현대적 시각에서 구성하여 해석하고 시대상을 조명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공연이 발표된 시기의 문학적인 주제로 그 시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의 문학적인 주제의 무용극이 한국역사를 익히 알고 있는 한국 관객에게도 제대로 읽혀지지 않는다면 세계인들에게 이해되어지리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을 관람하고, 수준 높은 세계적인 무용단체들의 내한 공연이 늘어나 눈이 높아진 대중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려면 무용예술은 보다 예술적인 완성도를 갖추어야 하며 문학적인 주제만이 아닌 한국무용의 표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2. 제언

본 연구에서는 주제경향분석을 토대로 직업무용단의 정기공연주제를 분석하여 시대별 무용단 흐름을 유추하고 분석함으로써 후속연구에 기반을 두고자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연구수행 중에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려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고에서는 직업무용단의 정기공연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각 무용단의 창단부터 현재까지 기획공연, 상설공연, 특별공연 등 모든 공연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면 당시 사회적 상황과 개인적 욕망의 모습을 보다 면밀히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각 무용단의 공연주제를 분석하고, 그들의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보다 다각적인 연구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본고에서는 국립무용단, 서울시무용단, 경기도립무용단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했다. 이 선별조건은 국립 최초무용단과 시립 최초무용단, 도립 최초무용단이라는 조건에 부합하여 한정된 범위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서울·경기에 한정되어 있다는 지리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좀더 범위를 확장하여 지방무용단까지 함께 연구 범위에 넣어 비교·분석한다면,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한국무용의 공연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연구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곽시내, *무용공연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전략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2] 김말복, “21세기 춤 환경과 국립 무용단의 창작 방향”, *무용예술학연구*, 제12권, pp.21-52, 2003.
- [3] 김병석, *서울무용제의 주제분석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4] 김유미, 김경희, “존 노이마이어(John Neumeier)의 베니스에서의 죽음*Death in Venice*에 내재된

연극성에 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지, 제70권, 제1호, pp.39-62, 2012.

- [5] 박숙자, “국립무용단 창작무용의 흐름과 특성에 관한 연구”, 움직임의 철학, 제15권, 제1호, pp.183-199, 2007.
- [6] 백선희, *직업무용단의 경력정체가 단원들의 경력 몰입 및 경력만족 경력변화인지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7] 윤덕경, “한국 춤 연구에 관한 맥락적 고찰”, 한국무용연구, 제24권, 제1호, pp.5-36, 2006.
- [8] 이정선, *무용공연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립무용단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9] 이현미, *전국 사·도립무용단의 한국무용공연에 관한 활동빈도 및 내용분석*,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10] 전진희, *서울시무용단 정기공연의 창작경향과 한국창작춤에 미친 영향*,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11] 정승희, *문예연감*, 서울: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5.
- [12] 제한정, *무용사회학의 정립을 위한 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13] 현주, 안지호, “문화정책과 국립무용단 작품 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지, 제67호, pp.231-251, 2011.
- [14] 홍연지, *서울시 무용단 공연활동에 관한연구 재단법인 출범이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15] <http://dance.ggac.or.kr/>
- [16] <http://www.arte.or.kr/>

저 자 소 개

심 다 숨(Da-Som Sim)

정회원



- 2011년 2월 : 단국대학교 공연디자인대학 무용과(학사)
- 2013년 2월 : 단국대학교 공연디자인대학 무용학과(무용학석사)

<관심분야> : 무용, 공연/전시

김 선 정(Sun-Jung Kim)

정회원



- 1995년 2월 : 단국대학교 체육과학 무용학과(학사)
- 1998년 7월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체육학석사)
- 2005년 2월 : 단국대학교 대학원 무용학 박사

• 2005년 ~ 현재 : 단국대학교 공연디자인대학 무용과 교수

<관심분야> : 사회학, 문화 콘테츠